

Camus 『이방인/Étranger』: 깨달음의 미학

정녕 오랜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생각했다. 왜 만년에 엄마가 '약혼자'를 두게 되었고, 왜 새로운 출발을 즐기고 있었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았다. 저기, 저 곳 역시, 삶들이 스러져 가는 양로원 근처, 저녁은 우울한 휴식과도 같았다. 죽음에 그토록 가까이 다가가서야 엄마는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고 싶은 자신을 느꼈음에 틀림없다. 아무에게도,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엄마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는 없다.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.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내게서 고통을 정확하고 희망을 제거해 주었듯이, 별자리와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마주하고 나는 난생 처음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에 나를 열었다. 이 세상이 그토록 나와 닮았으며 그토록 형제답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가 행복했음을, 또 여전히 행복함을 느꼈다.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, 그리고 외로움을 덜기 위해 이제 내게 남은 일이라면 처형당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나를 증오의 함성으로 맞아주길 염원하는 것이다.